

# ‘계절마다 변하는 빼어난 남원 풍경 감상해요’

남원시 수지면 수지미술관서  
네번째 전시회 ‘남원 재발견展’  
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  
향토작가 6인의 시선 담아



이번 남원 풍경전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지미술관(☎063-631-1009)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 수지면에 위치한 수지미술관(관장 심은희)이 네 번째 전시회 ‘남원 재발견展’을 연다. 오는 9월 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남원 출신 향토작가 6인의 시선으로 본 150여점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우선 김영기 작가는 계절마다 변하는 광한루, 지리산 불레길, 남원 향교 등 남원의 풍경을 사진으로 표현하였고, 박강용 작가는 옷칠장(정제) 보유자로 옷칠 공예품들의 새롭고 역동적인 모습을 선보인다. 박상호 작가는 화첩과 북펜 하나로 지난겨울부터 남원의 아름다운 실경을 담은 남원 화첩 시리즈의 결과물을 전시한다. 이경무 작가는 나무 그릇의 채움과 비움을 표현한 공예품을, 장흥철 작가는 철을 구부리고 녹이고 용접하면서 남원의 한(문화의 생동력)을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조현동 작가의 꽃, 나비, 새, 어패류 등 자연의 생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회화 작품도 함께 전시된

다. 수지미술관에 방문하면 큐레이터를 통해 자세한 해설을 들을 수 있으며, 미술관에서 마련한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통해 직접적으로 작가와 관객들이 소통할 수 있다. 전시 오픈링 리셉션은 3일 오후 3시 수지미술관 아뜰리에에서 진행

된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지미술관(☎063-631-100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5년 11월에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문을 연 수지미술관은 남원시 최초의 제1종 사립미술관으로 매년 4회 이상의 활발한 전시전을 통해 문화도시 남원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호평을 얻고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초·중·고 학생의 진로직업 체험 장소는 물론 다양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의 새로운 문화예술 교육의 장으로도 인기가 높다. /남원=유영철 기자



한옥마을아트홀, ‘순정이 블루스’ 앵콜 공연

전주 한옥마을아트홀은 가족의 소중함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연극 ‘순정이 블루스’를 앵콜 공연한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첫사랑에 대한 이련한 추억과 부모가 되어야 깨닫게 되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그린 이 작품은 쉽고 편안한 극 전개와 사이사이 추억 돋는 익숙한 음악의 조화가 돋보이는 창작극이다. 한옥마을에서 ‘조카 미션’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순정의 가게에 어느 날 수상한 손님 영훈’이 찾아온다. 생각지도 못했던 손님 덕분에 풍파가 일어난 식당. 작품은 이십여 년 전 부모의 반대로 헤어진 두 연인이 먼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나게 된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순정이 블루스’는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을 통해 도내 5개 지역의 순회공연을 성황리에 마치며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특히 이번 앵콜 공연에는 소소하고 재미난 에피소드를 추가하고, 먼 길을 돌아 다시 마주선 두 연인에 대한 이야기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공연은 9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며, 관람료는 전석 2만원. 문의는 063-282-1033. /정해은 기자

## 전북도립미술관, ‘봄·꿈·비상’ 노정희 개인전

노정희 작가는 작품 안에 전통과 한국적인 색채와 향기가 살아 숨쉬길 희망한다.



그래서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것을 내면에 간직하고, 그것이 현대적으로 표현 되게끔 하는 작업 활동을 해왔다. 작가는 이를 위한 감성 표현기법으로 색채를 우선시 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예스러운 면서도 색감이 풍부한 것들, 조각보·민화·오방색·지수·창살·꽃담 등을 모티브로 활용한다.

작가는 “이 모티브들과 교감하면서 작가로서 영감을 얻는 동시에 이들과 함께 꽃과 자연을 조합하고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통해 나의 정신과 꿈의 세계가 인화되는 듯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봄·꿈·비상’이라는 주제로 작가의 6번째 개인전이 31일부터 9월5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서원관에서 열린다.

작품에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함과 동시에 어울린 조각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현대인들의 갈등을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작가의 바람을 실었다. 또 한 조각 한 조각 이어주는 화합을 통해 회복과 같은 치유의 의미는 물론 이거니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작가가 바라보고 살아온 삶의 궤적이라는 현실을 담고, 무한하고 자유로운 이상의 세계를 꽃과 나비가 되어 비탈길과 함께 끝없는 비상을 비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노정희 작가는 원광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다. 미국 워싱턴(워싱턴 한국문화센터, 워싱턴), 전북미술의 현장전(전북도립미술관), 영·호남 미술교류전(부산시민회관, 부산), 한·몽 교류전(몽골), 군산개항 100주년 기념 한·중 교류전(군산시민회관) 등을 비롯하여 290여회의 다양한 기획 초대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상형전과 여류구상작가회, 토색회, 한국미술협회 등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해은 기자

## 야외에서 영화와 음악 함께 즐기는 전주국제영화제

(재)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는 9월1일~4일 2016 FALLing in JEONJU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주영화제작소에서 진행되는 영화와 음악과 ‘씨네토크’ 그리고 전주 남부시장에서 열리는 ‘영화와 맛’,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특별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영화와 음악’은 야외상영과 함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9월2~3일 오후8시 전주영화제작소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야외상영 전에는 2016 전주 얼티밋 뮤직페스티벌 창작가요제 수상팀의 공연이 펼쳐진다. 2일에는 은상 수상 팀인 감성 보컬그룹 ‘뮤즈그레인’의 공연 후 ‘천공의 벌’, 3일에는 대상 수상자 ‘오예린’의 무대 후 ‘리브 어게인’이 상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화관람 후 작품 게스트들과 만나 상영작에 대한 대답을 나누는 프로그램 ‘씨네토크’는 총 5회 열린다. 2일에는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넷팩상’과 ‘디큐멘터리상’을 수상한 ‘자백’의 최승호 감독이 게스트로 참석한다. 3일에는 ‘커튼콜’의 류훈 감독과 출연 배우들이,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대상과 CGV아트하우스 창작지원상을 수상한 ‘델타 보이즈’의 배우들이,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16’ 선정작 ‘눈밭의 조제인 감독이 관객들과 만난다. 또 4일에는 한국경쟁 공동



이번 영화제에서는 관람후 작품 게스트들과 만나 상영작에 대한 대답을 나눈다.

### 오늘부터 전주 남부시장 등에서

김현두\*가 GV의 특별 게스트로 참석할 예정이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특별전은 1일~4일 남부시장 청년물 내 청년화관에서 열린다.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의 한 장면을 재현한 전시 프로그램과 마들렌 슈게트, 앤티크 소품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프리마켓은 오후 1시~10시 진행되며, 오후 3시에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이 무료로 상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영화제작소 홈페이지 theju.jif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대상작 ‘연애담’의 이현주 감독과 배우들이 다시 한 번 전주를 찾을 예정이다.

또한 1일~3일 전주 남부시장 청년물 하늘정원에서는 ‘영화와 맛’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GV가 진행될 예정이다. 야외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GV)가 진행되는 동안 남부시장 청년물에 입점한 상점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1일에는 ‘차가운 새벽’의 어른의 아이스크림이, 2일에는 ‘백수의 찬’의 돈지루가 제공된다. 이어 3일에는 커피트럭으로 전국을 여행하는 건국청년

다. /군산=문정곤 기자

## 군산전국학생 ‘전통예술 경연대회’ 10일 개최

군산국악협회(회장 조상훈)가 주관하는 제26회군산전국학생전통예술경연대회가 오는 10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우수한 국악재능을 발굴해 훌륭한 전통국악을 전승하게하고 우리 전통예술을 육성해 세계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공경하고 무명함 심사를 위해 심사회비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참가자격은 전국 초·중·고 재학생(타대외 장관상 수상자 제외)이며 접수방법은 예술마루 홈페이지(www.artmaru.or.kr/), 국악신문사(www.kukak21.com)군산국악협회 카페(cafe.dam.net/b/59)에서 신청양식을 다운 받아 팩스(445-6946)나 e-mail(hana\_0@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학생대회이니 만큼 참가비는 없으며 접수기간은 1일부터 9일까지다. 경연방법은 당일 대회전 30분전에 추첨, 모든 부문은 7분 이내로 경연해야한다. 경연에 앞서 역대 장관상 수상자들의 축하공연도 마련된다.

조상훈 군산국악협회 지부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대상인 이 대회를 우리 학생들은 현장학습 체험장이라 생각하고 좋은 성적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9월 1일>

**▷쥐띠**  
46년생: 좋은 일하고 원망 듣는 운이다.  
60년생: 다치거나 아플 수 있는 운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72년생: 정신적으로 피로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운이다.  
84년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성사가 가능하다.

**▷소띠**  
49년생: 동서로 분주하나 움직이는 것에 비해 얻는 것은 부족하니 욕심을 버리는 것이 좋겠다.  
61년생: 구설이 따르니 언행에 주의하라.  
73년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는 운이다.

**▷호랑이띠**  
50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62년생: 다른 사람의 덕은 보기 어렵다. 기대하지 말고 혼자 해쳐나가기 한다.  
74년생: 중요한 약속은 점심식사 시간을 활용할 것. 좋은 결과가 있다.  
86년생: 타인으로부터 인해 신경 쓸 일이 생긴다.

**▷토끼띠**  
51년생: 타인과 화합하기에 좋은 운이다.  
63년생: 근신으로 인해 근심 걱정이 생기는 운.  
75년생: 처음에는 구설이나 후련에는 화합이나 먼저 베풀면 화합이 있을 것이다.  
87년생: 고집은 금물. 한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실패는 없다.

**▷용띠**  
52년생: 타인과의 불화, 시비, 구설이 예상되니 모임을 자제하고 언행에 주의.  
64년생: 늦게 움직이면 기회를 놓치게 되니 주의하라.  
76년생: 동기근으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기는 운. 화합에 신경 써야 하는 때다.

**▷말띠**  
53년생: 금전운이 들어왔으니 작은 일은 성공한다.  
65년생: 타인 또한 흔들리는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77년생: 다른 사람과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운.  
8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정신적 소모는 많고 얻는 결과는 적다.

**▷말띠**  
54년생: 평소 애 베풀던 덕이 복으로 돌아오는 때.  
66년생: 손재주가 따르니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운.  
78년생: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시작하라. 좋은 결과가 있다.  
90년생: 원행은 살기는 것이 좋다. 뜻하지 않은 횡재로 근심이 생긴다.

**▷양띠**  
55년생: 가벼운 말이 무거운 벌로 돌아오는 때.  
67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비리던 살림이 크니 마음을 비워라.  
79년생: 배우는 사람에게 큰 밑거름이 되는 운.  
91년생: 매사 깊이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 운.

**▷원숭이띠**  
55년생: 평소 애 받았던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생기는 운이다.  
69년생: 해야 할 일은 타인에게 미루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81년생: 다치거나 아플 수 있는 운이다.  
93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못하고 신난한 운이다.

**▷닭띠**  
57년생: 평소 애 알고 지냈던 사람에게 뜻밖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69년생: 문서를 주고받음에 있어 좋은 운이다.  
81년생: 타인과 화합이 잘 되고 결과가 좋은 운이니 긍정적으로 추진하면 성공한다.

**▷개띠**  
48년생: 운이 좋지 않으니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고 지중하며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좋은 때.  
58년생: 이렇스런 일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다.  
70년생: 강함과 약함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8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돼지띠**  
47년생: 외부는 평탄한 듯하나 내적으로는 불안.  
59년생: 문서에도 결성이 들었다.  
71년생: 뜻밖의 귀인을 만나게 되니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83년생: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는 좋지 않다.